

2010농어촌 교회방문을 마치고

_ 국내 선교 소위원회 농어촌선교 사역팀장 : 방치웅 안수집사

국내선교본부 농어촌사역팀에서는 미자립 농어촌교회 20개 교회(2010년 5월현재)를 재정지원(선교비 월20만원/2년간)하고 있다. 전반기에 2010년 5월29일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단강1리에 있는 작실교회와 신림면 구학리에 있는 구학교회 두 교회를 방문하였다.

작실교회는 동네주민이 20명 정도였으며 출석교인이 지체장애인 3명과 목사 가족정도였으며 작은 동네이지만 제법 큰 교회가 가까운 다른 곳에도 있어 자립하기가 다른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였다. 사모는 암수술을 두 번이나 받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 목사님 내조가 매우 힘들어 보였다. 담임목사도 교회부흥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으나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해 매우 안타까워 했다. 방문한 우리는 교회를 좀 더 활용도를 높여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팀원들과 같이 생각도 해보았다. 두 번째 방문한 교회는 구학교회였으며 동네주민이 230명 정도이며, 출석교인이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층이고 30명 정도가 예배에 참여하며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은 거의 없는 교회였다. 시골교회는 인구가 줄어들어 전도하기가 힘들며, 빈집들도 꽤 있었다. 그러나 담임목사는 지역주민들과 특수 작물도 같이 재배하고 주민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전도하려고 많이 애쓰며 사역을 하고 있다. 두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며 힘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교역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귀한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주님의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도 농어촌 선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은 농어촌 교회 사역팀에 연락을 주시면 우리들의 작은 정성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그곳 교회에 연결할 계획이다.



유년부 야외 예배

_ 유년부(포도나무) 2부장: 박기운 집사



지난 30일 유년부 야외예배가 아시아선수촌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나무들의 잎이 무성하여 보기도 좋고 시원했습니다. 겨울내내 썰렁하던 나무들이 봄에 새파란 어린잎을 하나둘씩 내더니 이렇게 무성하게 되었습니다.올해에는 아이들이 95명, 25명(전도사님 포함)의 교사가 참석하였습니다.

마이크가 없이 발간 확성기로 운대운 전도사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외에서 확성기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모습이 마치 노상전도 나온 전도단 같았습니다. 이런 전도사님의 말씀을 또랑또랑한 눈망울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자리가 커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 후 게임을 하였습니다. 이름하여 "종이비행기 멀리 날리기"입니다. 이면지를 한 아이에게 한장씩 나누어주었습니다. 능숙하게 접는 아이도 있지만, 어린 1학년 아이들은 대부분 대충 접습니다. 좌우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날려보더니 비행기가 다시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불평합니다. 게임은 학년과 남녀를 구별하여 4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제일 멀리 날아간 2사람을 선택합니다. 이럴 때가 항상 고민입니다. 근거리 차로 3등이 된 아이가 안스럽습니다. 하지만 3등이라는 말에 의외로 순종합니다. 1등과 2등인 아이들은 선물을 받고 즐거워합니다.

다음은 담임 선생님들과 맛있는 간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간식은 곰보빵과 우유입니다. 배고플 때이기도 하고 밖에 나오니 맛있었습니다. 모처럼 만에 자연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시간과 자연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사야 멈추어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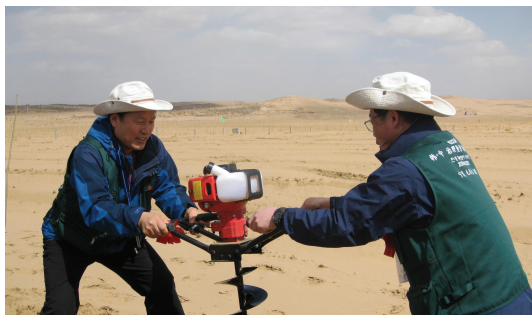
황사방지 식수(나무심기) 행사에 다녀와서...

_ 녹색사역팀 장승수 안수집사



'불청객' 황사가 예고도 없이 날아온다. 특히 올해는 겨울 가뭄 때문에 사상 최악의 황사가 불어 닥칠 것이라 예보도 있었다. 황막사(황사를 막는 사람들)를 약 10년 전에 알게 되어 금년에 두 번째 황사발원지 부근 사막에 나무를 심는 행사에 참여했다. 금년 식수지역은 중국 대륙의 한가운데 황허강 중부 인원 북부지역인 핑라현마오우즈사막 초입이고 식수기간은 지난 4월20일부터 24일까지였다. 이번에 심은 나무는 개량 양목(포플러 종류)을 약 33,400평에 9200그루를 심고 이곳에 한중 우호림이란 표시도 해 두었다.

금년이 12번째이고 약 50만 그루의 나무를 20여 곳의 황사발원지 부근에 심었다. 황사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겠다고 황사발원지인 중국까지 가서 나무를 심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심도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여러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고 귀한 곳도 참 많은데, 사막의 한 가운데서 끝없이 펼쳐지는 모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알 것 같았다. 또, 우리나라와는 아주 먼 거리이지만 이 척박한 사막(모래)에 나무를 심고 되돌아보면서 이 광활한 곳에 이렇게 나무를 심어나간다면 황사가 방지될 것이라고 믿으며 '시작은 미약하나 나



중은 창대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지구는 녹색으로 바뀔 것이며, 황사도 방지될 것이라 믿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황막사 외에 각 기업체 등 단체 약 20여 곳에서 매년 식수행사를 하고 있다. 금년 주님의교회 복지부 녹색사역팀에서 나무 구입비 100만원을 기탁해주셨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매년 이 행사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며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황막사라는단체는공식N.G.O단체임)

편집부 기자모집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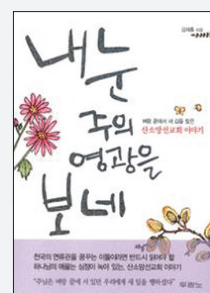
본 편집부에서는 <함글함글>에 봉사할 기자를 모집합니다. 사명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으며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을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분야 : 취재, 사진, 일러스트, 카툰.

*연락처: 편집장-하태원 (019-313-3073)

전화신앙 상담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2>

오늘은 욥의 이 위대한 고백으로 시작되는 귀한 책 한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베헤트병이라는 희귀질환으

로 31세의 푸른 나이에 갑자기 시력을 잃고 중도 실명자가 된 김재홍 목사님의 책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벼랑끝에서 새 길을 찾는 산소망선교회 이야기>입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던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이 결혼한 지 6개월만에 불치의 병에 걸려,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절망감에 휩싸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려던 순간, 죽음 이후의 세계가 두려워져 죽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확인하려던 청년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는 욥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청년은 자신의 파나는 노력과 아내의 헌신적 사랑과 희생에 힘입어 신학교에서 공부하여 목사님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목사안수를 받았지만 어느 곳에서도 그를 불러주지 않자 다시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친척에게서 온 전화 한통을 통해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자신처럼 인생중간에 시력을 잃은 중도실명자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988년 시작된 '산소망선교회'는 20여년간 실의에 빠져있는 중도실명자들을 찾아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왔으며, 재활을 통해 그분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삶에서 마주치게 된 많은 의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부부가 걸어 오신기가 막힌 고난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풍성한 은혜를 전해줄 책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꼭 읽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박윤정 기자>

|오늘의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_요일 4:12

통 권 _ 제 266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0년 6월 13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본교회가 위탁운영하는 가락본동 '숲유치원' 개원



최근에 우리 주변에는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아름답게 인성을 키워나가고 있는 유치원이 생겼다. 바로 숲 유치원이다. 숲 유치원의 대표적인 곳은 바로 독일의 '숲 유치원'이다. 우리에게 아직 생소한 이름이지만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20~30년 전부터 시작된 환경 친화적이고도 자연 친화적인 유치원으로 발전하여 왔다. 주님의교회에서는 2010년 초부터 송파구립

가락본동 어린이집을 위탁 경영해오고 있던 중(복지소위원회 사역), 교회의 투명하고도 헌신적인 지원과 더불어 운영란 원장 이하 17명 교사들의 능력을 인정받아 송파구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시작하는 숲 유치원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맡게되어 지난 5월 17일 가락본동 숲 유치원을 개원하였다.

숲 유치원은 플라스틱 장난감 생활공간으로 병들은 유아

교육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체험과 교육의 숲'이 되어 동심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호기심을 키울 수 있고, 환경보호에 대한 소중함과 중요성을 어린시기부터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 숲 유치원을 경험한 교사와 학부모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앞으로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로 뎀 나 무



| 나를 대신하여 |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9:12-13)

나를 대신 하여
죄인의 손에 잡히셨다.

나를 대신하여
온갖 모욕을 당하셨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십자가에 나는
다른 사람을 못 박는다.

어떻게 저를 수 있는가 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비난하고 조롱한다.

그런 나를 대신하여
또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

주님!
제 안에는 소망이 없기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아멘.

<엄혜숙 기자>

가락본동 어린이집의 숲 유치원 운영계획

*대상 : 만 3세~5세 혼합연령(18명)

*교사 : 4명 (보육교사 1명, 공익요원 1명(반드시 비흡연자), 숲 해설가 1명, 보조교사 1명)

*장소 및 시작일 : 오금공원 / 2010년 5월 17일

*숲 유치원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검사

- 검사 내용 : 체력검사(아산병원) 및 기타 검사(각 연구소)

- 검사 대상 : A그룹(일반 아동), B그룹(숲 유치원 아동)

- 검사 기간 : A 그룹과 B그룹의 아동들을 아산병원과 기타 연구소를 통해 체력검사와 창의성 검사, 사회성, 공동체 검사 등을 실시.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뒤 A그룹, B그룹의 체력, 창의성, 사회성,공동체 검사를 통해 변화된 것들을 확인. 숲 유치원의 많은 학자들은 아이들에게 뚜렷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

가락본동 숲 유치원 2면

제3여전도회/잊지 못할 수련회/간증 3면

농어촌교회방문기/유년부 야외예배 외 4면

□우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가락본동 숲 유치원

_ 복지기획팀장 정원영 안수집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연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주셨다.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섭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오랜 세월동안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여왔다. 그리하여 지구 곳곳에는 엄청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의 주님께서 그 어떠한 세상적인 가치보다 우선하며 생명의 풍성함이 가득한 자연을 통해 회복과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심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신다.



구체적으로 숲 유치원이란 어떤 곳일까?

1. 숲 유치원이란? 숲 유치원은 북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독일로 유입되어 이론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4~6세의 20여명 아이들이 하루의 일과를 숲에서 시작해서 숲에서 마무리한다. 사계절을 매일같이 3~4시간 동안 숲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은 자연의 변화와 흐름을 리듬적으로 알아간다. 숲 유치원은 열린 공간인 숲을 교육공간으로,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다.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은 아이들은 신명나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연과 교감하고 체험한 것과 느낀 것을 온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기는 '몸의 학습'으로 재화해 간다.

2. 숲 유치원 필요성: 우리의 아이들은 화색 빛 건물 안에 있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수많은 플라스틱 교육용 자료와 장난감의 홍수 속에 파묻혀 지내고 있다. 현대화된 생활공간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다. 새로운 대안 유아교육으로 부각되고 있는 숲 유치원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숲 유치원은 자연과 유리된 생활공간 속의 아이들에게 '치유의 숲' 그리고 '체험과 교육의 숲'이 되어 동심을 키운다.

둘째, 아이들이 호기심과 함께 자발적이고도 주체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의 대안이다.

셋째, 환경보호에 대한 소중함과 중요성을 어린시기부터 인식하게 된다.

넷째, 자생력을 기르는 교육공간이다.

다섯째, 세부적인 기술습득보다 창의성/ 사회성/ 영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성교육이 강조되는 미래 지향적 교육이다.

3. 숲 유치원 목적: 마음껏 내부에너지를 발산하며 몸과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뛰어놀 줄 아는 아이들은 행복하다. 우리들은 늘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혹은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는 통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숲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숲에서 뛰어놀며 자연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통해 동식물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 가고 생명에 대한 이해와 타생명의 소중함을 스스로 터득해 가고 있다. '아이들은 노는 게 배우는 것'이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교육을 하고있는 게 숲 유치원이다. 자연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교과서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일깨우고, 건강하게 자란다.

아이들에게 있어 '움직임'은 매일 자신의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미세 근육까지 사용하게 되는 숲에서의 다양한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히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알기도 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신감을 키우기도 한다. 어떠한 제약과 규제를 받지 않는 자연환경 그 자체인 숲 유치원에서 아이들은 상처받고 억눌린 혹은 미처 발현되지 못한 야성과 인성, 영성, 감성 등을 치유하고 키워간다. 숲 유치원의 목적은 아이들과 부모 교사가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삶과 일치되게 교육하는 것이다. 생명이 살아가는 우주 공간과도 같은 숲에서 아직 영혼 속에서 잠자고 있는 지식과 지혜의 소유자인 우리 아이들이 오감으로 자연과 교류하며 의식의 세계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숲 유치원 아이들에게 숲은 관찰의 대상이 아닌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동반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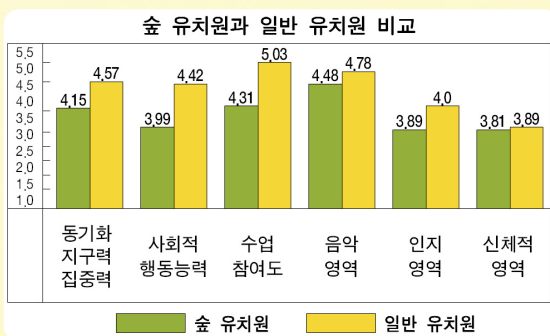
4. 숲 유치원의 효과: 2002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일반 유치원 출신 아이들에 비해서 숲 유치원 출신 아이들이 육체적, 교육적 효과는 물론이고 학교 진학 후의 적응 능력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숲 유치원은 독일 전역으로 꾸준히 확대되었고 이후 스위스에서도 숲 유치원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면서 지난 4~5년 동안 숲 유치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의 경우 숲 유치원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가 대기자로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될 경우 스스로 숲 유치원을 만들기도 한다. (2010. 6월 현재 가락본동어린이집 경우 : 131명 정원(숲 유치원 18명)에 대기자 574명 인)

숲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오히려 잔병치레를 안한다고 한다. 아토피나 천식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호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저항력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연구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효과는 사회성과 공동체성이다.

다음은 페터 헤프너 박사의 연구결과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도표] 숲 유치원과 일반 유치원 졸업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 비교



※ 1에 가까울수록 큰 값을 나타냄

위 결과에서 보듯이 조사 대상의 숲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은 일반 유치원을 거친 아이들에 비해 모든 조사영역에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6가지의 기준으로 특정한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효과(결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숲 유치원의 교육으로도 충분히 학교 적응능력을 갖출 수 있음을 밝혀주는 좋은 자료이다.

가락본동 숲 유치원에 다니면서 달라진 점

부모가느낀점

성격의 변화

*일반 유치원에는 다니기 싫어하던 어린이 → 매일 매일의 숲 유치원에 대한 기대가 크며,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되고 자신감이 커진 변화를 보게 되었음.

*어린이집에만 가면 싸우고 예민하였던 어린이 → 싸우지 않게 되고 여유로운 대인관계로 발전함

신체의 변화

수면 중 이를 갈았는데 80% 줄었음.

변비가 사라지고, 비염도 많이 줄었음.

교사가느낀점

언어 처음엔 수줍어서 말을 잘 못하던 유아들이 신체 활동을 통해서 점점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이제는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 표현을 할 때도, 짜증을 내거나 화내면서 말을 하던 유아들도, 이제는 명랑하고 힘 있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표현력이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사회 처음엔 자신의 뜻대로 안되면 가방을 던지거나 화를 과격하게 표현하던 아이가 지금은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고, 화가 나도 감정을 잘 조절 하여 과격한 행동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수줍고 말을 시켜도 대답을 못하고 웃기만 하던 아이가 지금은 나무에 제일 먼저 높이 올라가게 되었고, 그것으로 자신감이 생겨서 지금은 질문이나 발표에 조금 더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처음엔 넘어지면 울기부터 하던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넘어져도 혼자서 일어나서 툭툭 털고 다시 뛰어 다니고, 넘어지면 다른 친구들이 "괜찮아?"하면서 옆에서 도와주며,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 무겁다고 하면 가방을 들어 주거나, 다른 물건들을 솔선수범해서 들어주면서 뿌듯해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놀이 처음엔 달리며 뛰기만 하던 아이들이 지금은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나 확인하면서 다니고, 작은 곤충이나, 꽃 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장난감이 없으면 못 놀던 아이들이 지금은 땅을 파서 뱀비라고 하고, 나뭇잎을 이불이라고 하면서 장난감을 만들어서 놀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낙엽이나 비탈길을 보면 미끄럼틀처럼 내려오면서 즐거워하고, 돌이나 줄기 등의 식물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즐거워한다. 무엇보다 장난감이 없어도 스스로 자연물을 이용해서 놀이감을 만들어서 놀이한다는 사실이 무척 놀랍다.

신체 처음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척이나 힘들어 하던 유아들이 이제는 달려서 가거나, 계단 옆의 오솔길을 통해서 다니게 되고, 비탈길을 처음엔 줄을 잡고 올라가서 엉덩이로 내려오던 유아들이 지금은 뛰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통나무 위를 걸을 때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선생님의 손을 잡아 달라고 하던 유아들도 지금은 통나무를 보면 뛰어 올라가서 혼자서 균형을 잡아서 걸어가고, 낮은 나무에 올라가던 유아들이 점점 큰 나무위로 올라가서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기도하는 제3여전도회, 봉사에도 앞장서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뱀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삼상 2:1)

매주 화요일 본교회 식당에서는 풍성함과 화기애애함이 넘쳐난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노성도들이 늘푸른 대학에서 새로운 청춘의 삶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마도 정성과 사랑이 가득한 먹거리 탓이리라. 이러한 즐거움에 일조하는 것은 고정 봉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봉사자들이다. 이번 봉사팀은 제 3여전도회팀. 10여명의 여권사 집사님들이 평상시 교회에서 엄격한 모습을 보이



고 있는 것과는 달리 소탈하게 모였다. 긴 비닐앞치마를 걸치고 입가에 미소를 가득한 채 연신 땀방울을 흘리면서 봉사에 여념이 없었다. 인터뷰를 요청한 기자에게 계속 손사래를 치면서 “제가 뭐 특별하게 일한 것이 있나요?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사업에 봉사한다는 것만도 은혜인데” 본교회의 제3 여전도회는 본교회 창립부터 음지에서 봉사해온 성도들의 모임이다. 구성인원은 35명정도이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은 23명

정도이다. 임원진으로는 회장 유석희집사, 부회장 이현숙 권사, 총무 이덕례 집사, 회계 오미혜 집사, 봉사부장 이경자 권사가 있다. 이 모임에서 가장 힘쓰는 사업은 기도의 열심이다.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이들의 기도제목은 국가와 교회 그리고 목회자와 봉사자를 위한 기도와 개인적 문제등 기도가 쉽없이 이어지고 있다. 아마도 초창기 한국기도가 새벽기도와 성령기도로 부흥한 전통을 어렸을 때부터 그대로 보고 듣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이라라. 다음에 힘쓰는 일들은 봉사하는 일이다. 이들은 늘푸른 교회의 점심식사 준비를 비롯해 수서복지관의 불우노인을 도우며 반찬봉사에 적극정성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정승아 집사의 간증은 우리 믿음생활에 하나의 간증이 되고 있다. 정집사는 집에 관련된 송사로 고난이 심했으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사 41:10”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기도한 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밝게 웃으며 기자에게 기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취재: 하태원 편집장〉

잊지 못할 2008년도 전교인 수련회



금년에도 주님의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충주호 리조트에서 오는 7월 29일(목) ~ 31일(토)까지 3일간 예정되어 있다. 우리 부부는 2008년 하기 수련회 때의 추억을 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광림수도원에서 성극 “건너가게 소서”에 직접 참여한 일과 말로만 들던 성막체험을 직접 해보았기 때문이다.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성극에 참여하게 된 일은 지금도 꿈만 같았다. 어떻게 내가 그 귀한 성극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그 많은 스태프들과 호흡을 맞추었는지를, 그때 제대로 했는지도,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도 엄청난 일을 저지른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서인지 더욱 더 광림수도원에서 있었던 하기 수련회는 잊을 수 없다. 아니 잊혀지지 않는다. 지도 권사님께서 “한번 더 해보세요! 또 다시 해 보고 쉬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연습입니다!” 등등 연습을 하며 밤 12시가 다 되었는데도 “4막 팀은 한번 더 해보고 갈 것입니다!” 이 모두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정

신을 바짝 차리고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성극 “건너가게 하소서”에서 4막에서 제사장 엘르아살 역할이었는데, 대사로 별로 많지는 않았는데... 이 모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늘 곁에 간직하고 싶다. 무더위 속에서 많은 교우들 앞에서 실수없이 연극이 끝났을 때 한여름 밤의 꿈이었고 그 역할을 나에게 주심이 더욱 큰 은혜였다. 한가지 더 큰 은혜는 이튿날 성막을 체험한 일이다. 성경에서나 읽게 된 성막을 실제 모양대로 재현하여 모든 교인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었으며, 오래 오래 기억하고 추억으로 남아있기를 바랐다. 그때 체험하지 못한 교우들과 정신여중고 학생들을 위하여 교회 운동장에 성막을 재현하였고, 교우들이 많은 은혜를 받은 성막 지금은 가평 송동교회 기도원에 가면 볼 수 있다. 2년마다 열리는 전교인 수련회 금년에도 오래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많은 은혜를 기대해 본다. 〈박오호 집사〉

고뇌(苦惱)를 뚫고 환희(歡喜)로

〈김수호 협동장로〉

2009년 10월 13일 밤 나는 시골집 마당의 평상에서 저녁식사를 한후 자리를 옮기던 중 발을 헛디뎠다 땅에 떨어지는 순간 사지마비가 되었다.

이런 저런 불길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태운 앰블란스는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수술을 앞두고 며칠간 실시한 수많은 정밀검사를 종합한 주치의 선생은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었다.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술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가슴을 압박해오는 불안감이었다. 기도는 입가에서 맴돌고 있었다. 손목으로 침상을 내려치면서 울분이라도 토하고 싶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마치 노끈으로 온 몸을 꽂꽂 묶어놓은 상태에서 오직할 수 있는 것은 고래고래 고통을 지르는 것뿐이다. 그러나 차마 그런 행동은 할 수 없었다. 순간 순간 압박해오는 공포를 더 이상 견디다 못해 급히 아들에게 까지 기도 요청을 했다. 아들의 답변은 “지금 아버지의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면 일순간에 공포가 사라지는데 먼저 회개 기도를 해아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그 회개 기도에 절대 숨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20년전 장로 창립이후 오늘에 이르러까지 나의 신앙 여정에서 특히 교만했던 일들을 먼저 떠올리며 회개 기도를 했다. “만일 교회에 가게 되면 나는 우리교회 중보기도팀에 들어가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할 것입니다” 수술 하루전날 나는 주님의 교회 중보기도팀의 당시(2009년) 이은영 권사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



요청을 했다. 다음날 장장 여섯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수술전 담당 교수는 지금 경주에 동맥경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수술을 하지 않으면 결정적 위험에 직면한다고 했다. 수술후 일주일일이 지났지만 손가락과 발가락이 약간 움직일 뿐 대·소변과 음식은 누운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었다. 특히 대·소변을 손수 처리하는 집사람이 너무나 안쓰러워 간병인을 두자고 했지만 남편에 대한 최후의 봉사라면서 하는데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다. 한편 시간이 가면서 나는 앞으로의 여생을 곰곰히 생각했다. 만일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과연 이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즉 매일같이 대·소변 받아내고 음식 먹여주고, 내 나이 이미 70을 넘었는데, 무슨 큰 영광을 보겠다고 이 구차한 삶의 욕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어느날밤 나는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앞으로 이 몸이 사지마비된 상태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 보다는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눈물과 근심 걱정이 없는 영생복락의 그 천국으로 제 영혼을 불러 주십시오” 나는 이 기도를 시시 때때로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루종일 누워서 천정만 보니까 둘째딸이 천정에다 큰 그림들을 부쳐주었다. 어느날 나는 큰딸을 조용히 불러 유언 같은 말을 했다. “내 나이가 50대 또는 60대 같으면 비록 사지마비가 되었지만 그런 데로 삶의 미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71세의 나를 더 오래 살리기 위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은 효도가 아닌 불효의 죄악이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나를 편안하게 보내는 길을 준비해라, 그리고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차마 할소리는 아니지만 만일 이것을 너희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훗날 내가 귀신이 되어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딸은 아무 대답없이 침통한 표정만 지었다. 한편 처절한 내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서 일체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소문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면서 박원호 담임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아는 성도들이 찾아와 뜨거운 기도를 해줌으로서 내 마음을 서서히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나는 척수분야 현 모 교수의 치료를 받고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퇴원 일주일일을 앞두고 병실을 찾아온 현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하루 전

날 실시한 조직검사서에서 전립선 암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퇴원날자를 기다리며 흥분과 즐거움에 빠져 있던 나의 가슴에 다시 먹구름이 닥쳐왔다. 나는 아무말도 없이 차장 넘어로 하늘만 보고 있었다. 12월 7일 삼성병원 암센터에서 수술을 앞두고 주님의 교회 중보기도팀의 이은영 권사에게 다시 전화를 했다. 한편 수술 11일만에 퇴원하던 날 집도의 서교수는 나에게 암이 워낙 초기에 발견되어서 간단하게 처리되었으며 퇴원후 약도 방사선 치료도 필요없다고 했다. 2010년 3월 처음으로 중보기도회 참석한 날 나는 깜짝 놀랄 체험을 했다. 담임목사님의 설교에 앞서 김주원 사모가 인도하는 찬양기도회에서 이날 김주원 사모의 그 청아한 찬양소리는 내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가끔 기독교 방송에서 들던 그 복음가수인줄 알았다. “나는 항상 너의 기도를 멀리서 엿듣고 있었다”라는 찬양소리가 내귀를 스쳐가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순간 눈물이 펄펄 쏟아지기 시작했다. “너의 기도를 항상 멀리서 엿듣고 있었다” 이는 분명히 나에게 하는 말이 었다. 모든 면에 부족하고 모든 면에 교만했고 특히 장로로서의 직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 미련한 인간의 기도를 그래도 우리 주님은 멀리서나마 엿듣고 있었다니... 이날 따라 손수건이 없어서 눈물은 계속해서 안경 아래로 줄줄이 흘러내렸다. 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때도 나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날 타 교회에 다닐 때 부흥회 때마다 남들은 성령을 받아 코눈물을 흘리며 펄쩍 펄쩍 뛰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 속으로 왜 나에게서는 저런 감동의 눈물이 나오지 않을까?... 한달이 지난후 4월 중보기도회가 열린 날 박해성 목사님 김주원 사모의 그 아름다운 화음의 찬양은 다시 내 마음을 울려서 시작됐다. 그러나 설마 오늘도...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달전 중보기도회 때처럼 또다시 이유도 모르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즉시 깨달았다. 오늘도 성령님은 이 성전에 바람같이 불같이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찬양예배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 특히 하나님은 찬양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